06. 중세 이베리아의 문명교류를

접변형으로 정의하는 이유

* 문명 교류의 글로벌 사회 12주차 리포트 –

협성대학교

20170677 오융택

엠블럼, 상징, 로고, 등록 상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본 리포트에서는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문명간 교류과정을 문화 접변형으로 정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합니다.

중세 시기의 문명 교류의 양상은 3곳의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1.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 시칠리아, 2. 레반트 지역의 예루살렘, 그리고 3. 안달루시아 지역의 이베리아 반도였습니다. 이 중 이베리아 반도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과 더불어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두 문명권의 영향을 모두 받은 지역으로 문화적, 경제적인 교류 뿐만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인 교류 또한 매우 많았던 지역입니다.

중세 이전까지 지중해 지역의 문명 교류는 '동체음양'의 양상을 띠었으나, 중세 이후에는 기독교 세력권과 이슬람 세력권이 접하면서 '이체음양'의 교류 양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이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개방적인 열린 경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종교적으로는 폐쇄적인 닫힌 경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이체음양의 교류 양상은 특히 이베리아 반도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고대에는 로마와 카르타고의 문화교류를 경험했고, 이슬람 세력의 진출로 인해 약 Reconquista(재정복)이라는 이름으로 800년간 이슬람 세력과 카톨릭 세력의 전쟁이라는 종교 영향력의 세력 다툼이라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재정복 기간 동안 기존의 세력이었던 기독교 세력은 이슬람 세력의 이베리아 반도 진출을 침략이라는 행위로 간주하고 격렬히 저항하였습니다. 하지만 800년이라는 긴 세월과 뛰어난 중앙아시아의 문화는 기존 이베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의 대상이 아닌 나도 경험하고 이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로 자리잡았고, 건축, 예술, 철학과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슬람 세계의 지식인들 또한 받아들여 문명간의 이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폐쇄적인 두 문명권의 다툼이 존재했지만, 문화적, 경제적으로 뛰어난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고 기존 문화와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문화와 새로 접한 이슬람 문화가 서로 뒤섞여 조화로운 하나의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이러한 문명간의 교류 과정은 단순히 어느 한 문명권에서 다른 문명권으로의 문화의 전파나, 흡수가 아닌, 서로 다른 문화들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생성하는 유형의 교류가 존재했습니다. 이 과정의 결과로 기존의 사회적 구조나 문화적 가치가 완전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문화 요소들이 기존의 문화 요소들과 결합하면서 이탈리아 반도나, 레반트 지역에서의 문명 교류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적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중세 이베리아의 문명 교류의 양상은 중첩의 양상이 아닌 접변형으로 정의해야 합니다.